“실패한 수행 없다! 더욱 정진하라”

부산 재가하안거 해제, 즉문즉설로 수행 독려

부산 재가자 하안거 해제법회에서 스님들이 즉문즉설로 더욱 수행하고 정진할 것을 독려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8월 14일 부산 안국선원교육관에서 무술년 재가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해제법회는 즉문즉설로 진행돼 재가안거에 동참한 불자들은 평소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스님들은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즉문즉설은 법회 전 모은 질문을 정리해 차례로 질문하고,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 수석부회장 원허 스님, 부회장 만초 스님, 포교원장 하림 스님, 교육원장 정관 스님이 차례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안거기간 동안 예기치 않은 일정으로 수행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빠지고 나니 제대로 못했다는 자괴감에 힘들고 억지로 수행 안거일을 채웠다”라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심산 스님은 “수행은 하고 싶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숙제처럼 풀어 나가다보면 언젠가는 습이 되고 생활이 된다”며 꾸준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대중은 △수행 중 타인의 허물이 보일 때 극복 방법 △안거 후 수행 성취감 부족 △채식 후 역겨운 주변 냄새 △주변인과의 다툼 등 수행 중 겪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석부회장 원허 스님은 “채식을 하면 냄새로 힘이 들기도 하지만 적응하고 견디는 것 또한 수행”이라며 “선방을 다니며 수행할 때 직접 겪은 일이라 잘 알지만 그렇게 견디는 것이 우리들 삶”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님들은 자신이 수행 중 겪은 이야기들을 재가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큰 박수를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죄 없는 부산바다 만드는 캠페인

사하경찰서 경승실, 범죄예방 홍보 앞장서

부산 사하구 스님과 불자들이 범죄 없는 바다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산 사하경찰서 경승실(경승실장 혜원)은 8월 9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사하 경찰과 경승이 함께하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경승실장 혜원 스님, 사하구불교연합회장 법인 스님, 총무 송우 스님, 박창식 사하경찰서장 등 경찰 30여 명과 불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캠페인에 앞서 경승실은 다대포해변 공원관리센터 2층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혜원 스님은 “우리 불교가 깨끗하고 행복한 부산이 되도록 함께 하고 노력하겠다”며 “더운 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는 경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박창식 사하경찰서장은 “항상 매년 여름 찾아와 격려해주시는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치안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명불원, 9월 7일 제3회 가을음악회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이 가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제3회 동명불원 가을음악회 ‘부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를 9월 7일 오후 6시 30분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음악회는 가람소리합창단 공연 및 윙크, 홍원빈 등 초대가수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동명불원은 무더운 여름 지친 지역민에게 선물을 선사하고자 푸짐한 경품을 마련했으며, 부산남구청에 사랑의 백미 쌀 10kg 100포를 전달한다. 아울러 제1회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린다.

동명불원은 “뜨거운 폭염에 지친 지역민을 모시고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모두가 하나 되는 나눔의 자리를 열고자 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 여름나기, 우리가 책임져요”

김해 길상사 성현덕회, 매년 경로당 자비나눔

김해=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찰 신행단체가 지역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말벗이 되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김해 길상사(주지 혜수) 성현덕회는 8월 14일 지역 내 경로당 16개를 방문하고 ‘찾아뵙는 경로당 위문 방문’을 실시했다. 어르신 위문에 앞서 찾아간 길상사 법당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상자와 떡, 선물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성현덕회 불자들은 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듯 활짝 웃었다.

포장된 상자들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으로 마련한 효선물이다. 무더운 폭염에도 성현덕회 회원들은 “마치 멀리 있는 친정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처럼 걸음 가벼워 행복하다”면서 미소 지었다.

성현덕회 회원들은 법당에 쌓아놓은 선물을 들고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 나기와 건강을 기원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성현덕회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무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성현덕회는 매년 여름을 맞아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길상사 주지 혜수 스님은 무엇보다 효 사상을 배우는 나눔 활동을 바탕으로 성현덕회 회원들이 바른 불자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주지 혜수 스님은 “경로당 방문은 무엇보다 성현덕회 불자들이 효 사상과 차별 없는 마음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활동”이라며 “부자와 가난한 어르신으로 구별하는 마음 없이 진실하게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실천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아울러 어르신들의 행복도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역 16개 경로당 방문하며
먹거리 등 선물 나눠 ‘귀감’
2011년부터 소외계층 위해
십시일반 기금 모아 자비행

성현덕회는 2011년 자비 실천을 강조하고 실천해 지역 내 바른 견해를 갖춘 불자 양성을 위해 창립됐다.

주지 혜수 스님은 “길상사가 위치한 김해는 가야불교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불교계 자비나눔이 부족하다. 결국 불교가 지역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진단하며 “가야불교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불교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따르는 불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 길상사 성현덕회 회원들이 ‘찾아뵙는 경로당 위문 방문’에 앞서 길상사 법당서 선물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박예순(57 · 명지심) 성현덕회 국장은 “1년 동안 행사할 때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바쁠 때도 있지만 보람이 많이 된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활동이지만 성현덕회 회원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현덕회는 창립 후 자체 회원을 모집하고, 나눔을 위한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지역 내 소외 된 이웃과 병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성현덕회는 현재 3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맞춤형 자비행을 실천 중이다. 2월 겨울에는 졸업을 앞둔 초등학생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는 컵 연등을 손수 제작해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방문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라면 탑 쌓기를 진행한다. 8월에는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위문 나눔, 김장철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김장을 나누는 등 연중 자비나눔을 쉬지 않고 있다.

힘든 군생활 속 ‘단비’ 같은 위문

태고종 전북종무원 등 육군부사관학교서 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무더위 폭염 속에 힘든 훈련과정을 수행하는 부사관 후보생들을 위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은 8월 12일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에서 부사관 후보생들을 위해 법회를 열고 위문공연을 선사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와 육군부사관 후보생들이 위문법회서 함께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폭염 속에서 진행된 법회는 진성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 총무국장 송운 스님, 교임국장 현진 스님, 원경사 자비 스님,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명섭 호국충국사 금강회장,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370여 명의 부사관 후보생들이 참석했다.

자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사관 후보생 여러분은 나라의 기둥이고 명품”이라며 “나와 국가를 위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열심히 정진해달라”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법문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는 부사관 후보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과거 그 누구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선 데는 조국을 사랑한 이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런 뜻을 이어받은 여러분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폭염 속에 훈련을 소화하다보면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후에는 마이산 탑사 봉사단 이재현 거사의 사회로 위문공연이 펼쳐졌다. 탑밴드의 신나는 난타공연과 색소폰 공연, 진성 스님과 혜인정사 진송 스님, 혜인정사 부자들로 구성된 색소폰 연주팀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 진안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댄스팀은 법당을 가득 메운 부사관 후보생들을 매료시켰다.

이날 위문법회에서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마이산 탑사는 장병들을 위해 떡볶이와 아이스크림을, 또 진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제공했다.

법회에 참석한 심윤지 부사관 후보생은 “임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고된 훈련 속에서 신앙의 힘을 비롯해 이러한 위문 행사들이 큰 버팀목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위문 행사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무사히 임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섭 육군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 금강회장은 “호국충국사 금강회에서도 불자 후보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야전에 나가서도 불자 부사관으로서 군불교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음양오행 동양철학

내가본 운명학

신개념 지침서

운명은 사람을 지배한다.
운명을 알고나면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숙명(宿命)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수 있다.

동양 철학인 음양오행 사상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과 지구의 자전 공전의 움직임과 삼라만상의 신비하고 오묘한 자연의 이치를 알아내는 학문으로서 자연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년.월.일.시.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것을 추명학으로 풀이하면 사주팔자(四柱八字)라 하는데 사주팔자에는 숙명(宿命)과 운명(運命)으로 분리해서 정해진다.

– 본문中에서 –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양정진(덕광스님) 著 / 신국판 / 268쪽 / 정가 20,000원

금강삼매경요해, 드디어 나왔다!!

천년千年의 보물,
불지혜佛智慧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그토록 찾던 불佛지혜 깨달음의 보물!
성불成佛의 심오한 비밀 지혜통로와
그 지혜 과정을 상세히 모두 밝혔다.
깨달음 보살세계 무위지혜의 차별차원
대승, 일승, 일불승, 불승, 불佛의
최상 깨달음과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최고지혜경전, 금강삼매경 불지혜로 꿰뚫어 자상히 두루 밝혀 5종금강삼매경(고려장경·대정장경·원효론·원징주해·주진통종기) 하나로 묶었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신국변형판 / 936쪽 / 정가 70,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본기청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실체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념 분제두수 심오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新사주학핵심비결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817쪽 / 50,000원

사주풀이의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